

독특한 맛과 기능성을 더해 성장 돌파구 찾는 미국 껌시장

LA지사

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껌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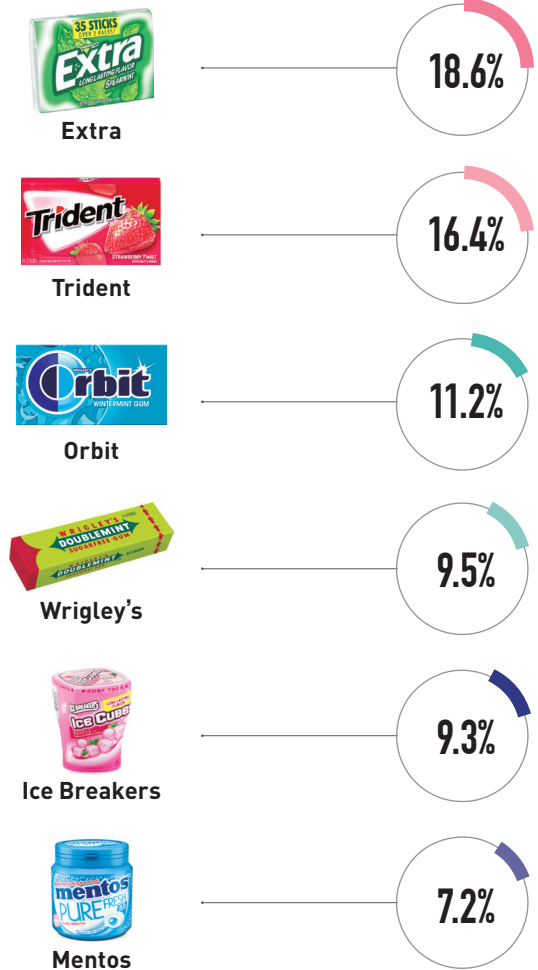
- 「유로모니터」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기호식품시장으로 꼽히는 껌시장의 규모가 2009년 41억 7,800만 달러(약 4조 7,000억 원)의 매출로 정점을 찍은 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
- 특히 지난 2017년에는 34억 6,000만 달러(약 3조 9,000억 원)로 7년 만에 매출이 17%나 줄었다. 이에 제조업체들은 껌시장 매출 회복을 위해 독특한 맛과 기능성을 더한 껌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. 이런 추세로 연평균 1.5%씩 매출이 상승한다면 2023년에는 37억 5,000만 달러(약 4조 2,000억 원)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미국 껌시장 매출 추이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연도	판매규모	증감률
2013	3,624	-5.2
2014	3,533	-2.5
2015	3,574	1.2
2016	3,536	-1.1
2017	3,455	-2.3
2018	3,488	0.9

출처 : Euromonitor 「Gum in USA」

미국 껌 브랜드 점유율 (단위 : %)



출처 : Euromonitor 「Gum in USA」



달라진 쇼핑 방식

- 껌시장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는 쇼핑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. 셀프 체크아웃과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소비자 자신이 껌, 초콜릿 등의 기호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계산대 근처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서 껌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.
- 이밖에도 디저트 껌 입냄새 제거, 간단한 입가심거리로서 껌이 해운 역할을 젤리나 민트 관련제품 등이 대체하면서 껌소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기능성을 갖춘 껌으로 활로 모색

- 침체된 껌시장의 규모회복과 소비증진을 위해 제조업체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. 디저트나 재미를 키워드로 한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껌제조사들은 이제 껌의 씹는 재미 외에도 실용적이며 색다른 기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, 다양해진 소비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맛을 더한 신제품으로 전략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.
- 미국 껌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Mars Wrigley사는 올해 초, 'Alert Caffeine' 껌을 새롭게 출시했다. 한 시간 이른 시차가 발생하는 미국의 썸머타임 시작에 맞춰 출시된 이 껌은, 졸음방지용으로 껌 한 개당 40mg, 즉 일반커피 반 잔과 같은 양의 카페인 함유되어 있다.

- 이밖에도 멜라토닌을 함유해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껌을 비롯해 치아건강에 좋은 껌, 비타민, 미네랄, 허브추출물 등을 첨가했음을 내세우는 껌들도 속속 등장하며 침체된 껌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.

기능성, 유기농, 내추럴을 강조한 껌 제품들



미국적이고 독특한 맛으로 소비트렌드에 부응

- '유로모니터'는 독특하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껌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.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용과(Dragon Fruit) 등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과일의 맛을 활용하거나 기존 과일의 맛을 섞어 색다른 맛을 만들어내는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.

- 딸기, 수박, 트로피컬 베리를 섞어 만든 ‘Wrigley’s Juicy Fruit Collisions’를 비롯해, 매운맛 트렌드에 맞는 ‘Spicy Hot Cinnamon’ 등 껌의 맛은 갈수록 다채로워지는 추세다.
- 식품업계에 글리터(Glitter)가 화제가 되면서, 먹을 수 있는 글리터를 활용한 껌도 등장했다. 올해 허쉬사에서 내놓은 ‘Ice Breakers Ice Cubes Glitter Summer Snow Cone’ 껌은 먹을 수 있는 반짝이가 덧붙여진 껌으로, 글리터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시됐다.

- 또한 미국 식품업계의 핵심 키워드인 ‘내추럴’ 과 ‘유기농’ 이 껌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미 무설탕 껌은 전체 껌매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높아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 100% 내추럴과 유기농을 내세운 제품들도 속속 출시하는 추세다.
- 전반적인 껌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허쉬사의 아이스크림은 독특한 큐브모양과 다채로운 맛으로 나홀로 성장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. 이는 독특함과 다양함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.
- 한국산 껌 역시 미국산보다 부드럽다는 장점과 특색있는 기능, 새로운 맛을 더한다면 미국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.

색다른 맛의 껌 제품들



기능성을 더한 줄임 방지 껌

껌시장 경쟁력의 열쇠는?

- 침체된 껌시장 회복을 위해 제조업체들이 기능성과 색다름을 강조하며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. 카페인을 더한 줄임방지 외에도 다양한 영양성분을 첨가하는 등 질적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.

출처 : Confectionerynews 「Functional Gums launches 100% natural chewing gum, made of 100% biodegradable and natural gum base」(18. 7. 17)
 FoodDive 「Gum’s bubble bursts as consumer interest wanes」(17. 11. 22)
 Health Blurbs 「What is Functional Gum, Chewing Gum Benefits」